

# 예타 심의과정 ‘지역 균형발전’ 최우선 고려해야

## 광주·전남 현안사업 예산 확보 탄력

### 경전선·고속철 무안공항 경유

### 대촌~금촌 도로·남해안 철도 등

###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귀추 주목

정부와 국회가 내년 본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할 대목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산 지원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광주·전남지역의 주요 현안사업 상당수가 예비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번번히 발목을 잡히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유동인구가 적고 경제 기반이 취약한 소외 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한 예비타당성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호남 소외의 상징, 경전선=광주시의 대표적인 사업 중 광주~순천간 전철화(경전선·116.5km·2조304억원)·광주 대촌~나주 금천간 도로 확장(9.1km·800억원) 사업이 예비타당성 심사 대상이다.

경전선은 전국 4대 간선철도망(중앙·호남·경부·경전) 중 유일한 단선·비전철구간이며 ‘호남 소외’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다. 지난 1930년 건설 후 90여년 동안 개량되지 않은 유일한 철도다.

경전선은 지난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0년)에 반영되고 2012년 대선 당시 대선공약으로 채택된 뒤, 2013년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됐다. 현재 예타가 이뤄지고 있지만 B/C가 경제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주~부산 전체 구간 중 순천~부산 노선은 이미 완공된 상태다.

또 광주시의 광주 대촌~나주 금천간 도로 확장 사업도 지난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예타 조사 용역을 착수했다. 이 도로는 빛가람혁신도시와 남구도시첨단산단, 광주~완도(강진) 고속도로 사업지와 연계되는 광역도로망으로 확장이 시급하다.

한하고 요구하고 있다. 호남의 주요 거점인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접근성 개선, 광주·무안공항 통합, 2020년 혁신공항 개항, 환황해권 물류·교역 증대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점을 듣고 있다. 반면 기재부는 경제성을 이유로 무안국제공항 경유를 반대하고 있다. 대신 함평에서 무안국제공항까지 지선으로 연결하라는 것이다.

남해안철도는 목표와 부상을 잇는 철도 건설 사업이다. 국토 서남권과 동남권을 연결해 인적·물적 교류를 강화한다는 목표다. 철도가 완공되면 목포에서 부산까지 소요시간이 현재 7시간에서 2시간50분으로, 무려 4시간10분 단축된다. 이 사업은 과거 정권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했다. 부산에서 광양까지 동남권 구간은 이미 완공돼 운행되고 있다. 서남권 구간만 지연되면서 반쪽 운행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G20 각국 정상 부부가 7일 오후(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 엘브필하모니에서 열린 G20정상회의의 만찬장 앞에서 각국 정상부부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연합뉴스

민주·인권 기념파크 조성사업에도 정부의 유연한 판단이 필요하다. 총 사업비 1175억원을 투입해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 인권교육훈련센터, 인권평화교류센터, 인권평화기념공원, 5·18사적지 원형 보존, 한국민주주의전당, 솔로몬파크 등 민주인권의 미래 세대 교육과 법 체험공간을 조성한다.

광주시는 올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거쳐 2019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잇다만 도로·철도 집중투자 질실=전남도는 열악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조기 완공(2조4731억원), 목포~보성 간 남해안철도 건설(1조5588억원),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1조5346억원)이 3대 주요 SOC 사업이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은 ‘무안국제공항 경유’ 문제로 발목이 잡혀 있다. 전남도와 국토부는 고막원에서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해 목포까지 연결해야

하는 정권 입맛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대표적 예산과소편성 사업으로 지적받고 있다. 내년부터 예산을 집중투입해야 하는 이유다.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는 전남 중남부지역을 잇는 고속도로로, 지역민들의 숙원 사업이다. 기재부는 경제성이 없다며 광주~나주~강진까지 1단계 사업으로 끝내려고 해 지역 소외 사업 중 하나로 꼽힌다. 전남도는 물류비 절감과 전남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들 SOC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라는 점에서 예타를 강조할 것이 아니라 국토 균형발전 등을 감안해 국가사업으로 확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한반도 평화 ‘베를린 선언’ 세계가 관심

### 문대통령 G20회담 성과와 과제

### 반년 이상 방치 외교공백 메우고

### 주요 정상과 신뢰 쌓기 성공

문재인 대통령이 9일(이하 현지시간) 독일 공식 방문과 함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참석을 위한 4박6일 간의 독일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주 첫 해외방문이었다던 3박5일간의 방미일정까지 감안하면 11일만에 걸친 ‘외교대장정’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숨 돌릴 틈 없는 강행군으로 이어진 문 대통령의 이번 해외순방은 양자와 다자를 아울러 반년 이상 ‘방치’됐던 외교공백을 메우고 주요국 정상들과의 개인적 신뢰관계를 쌓는다는 당초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다고 평가된다.

이번 순방의 더욱 중요한 성과는 한반도 최대 현안인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한국이 주도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외교적 프로세스의 첫발을 떤 것이다.

동북아 역내질서를 이끄는 한반도 주변 4강(중·미·중·일·러) 모두로부터 한반도 문제를 다루나가는 데 있어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지지를 끌어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내놓은 ‘베를린 구상’은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달성해나가기 위한 기본 원칙과 제안을 집대성한 것으로서 국내외적으로 크게 주목받았다.

◇‘한반도 주도권’ 잡고 4強 사이 ‘중심잡기’=한반도 주변 4강을 비롯해 주요국들이 앞으로 한반도 문제를 다루나가는 데 있어 한국과 우선적으로 ‘협조’하도록 외교적 논의구조와 프로세스를 만들어낸 것이 가장 중요한 성과로 꼽힌다.

북핵 6자회담 당사국이면서도 정작 북핵 해법을 놓고 ‘동상이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4강 사이에서 한국이 나름대로 중심을 잡고 이견을 조율해 낼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을 만들어 냈다는 평가다.

다자 정상외교 무대인 G20 정상회의에서 북한

핵·미사일 도발이 관심주제로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도 문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공론화를 꾀한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요국들의 이 같은 공감대 속에서 한국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압박’과 ‘대화’의 양 갈래 흐름 모두에서 이니셔티브를 잘 여지가 생겼다고 볼 수 있다.

당장의 북한 도발에 대해 더 큰 제재와 압박을 가하되, 이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도록 만드는 수단이며 궁극적으로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달성한다는 ‘과감하고 근원적인 접근법’이 외교적으로 주효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제재와 압박에 무게를 둔 미국과 일본으로부터는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을 이끌어냈고, 대화와 협상을 여전히 강조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는 더 적극적으로 대북압박을 나서라고 촉구하는 전략을 펴게 됐다. 특히 이번 순방의 최대 하이라이트였던 ‘베를린 구상’은 바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우리 정부 주도로 해나가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북한 체제 보장과 흡수통일 배제 등 ‘대북 4대 불가원칙’을 제시하고 북한 비핵화와 북한이 희망하는 평화협정 체결을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출구문’을 분명히 했다.

◇다자외교 무대 성공적 데뷔 =문 대통령은 독일 공식방문 기간과 G20 정상회의 기간인 5~8일 나흘간 모두 9개국과 10차례의 양자 정상회담을 했다.

이중 한반도 주변 4강을 빼면 독일·프랑스·인도·캐나다·호주·베트남 등 6개국 정상과 첫 만남을 갖고 현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독일의 경우 대통령과 실권을 지닌 총리까지 두 번의 정상회담을 소화했고, 캐나다는 당초 예정에 없었으나 쥐스탱 트뤼도 총리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회담이 이뤄졌다.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했고 EU(유럽연합) 정상회의 의장, 유엔 사무총장, 세계은행 총재 등 3개 국제기구 수장과의 면담을 이어갔다. 4강 외교를 넘어 외교 다변화의 기틀을 다졌다는 평가는 그래서 나온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다자외교 복원” “국익우선 환영” “외교난맥 드러나”

### 정치권 G20 회담 엿갈린 평가

문재인 대통령의 G20 외교행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자외교를 복원했다”며 높이 평가한 반면, 야권의 반응은 미묘하게 엇갈렸다. 구체적 성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그동안 공백상태였던 다자외교를 복원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주도권을 인정받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들의 입장은 엇갈렸다. 보수 야당들은 이례적으로 호평을 내놓은 가운데 중도 야당인 국민의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첫 4강 외교에서 국가안보와 국익

의 편에 선 것을 환영하고 지지한다”는 논평을 발표한다 이어 한·미·일 3국 정상 공동성명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하며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바른정당 역시 한·미·일 공동성명에 대해 후한 평가를 내렸다. 바른정당은 논평에서 “3국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은 매우 적절한 행동”이라며 “문 대통령의 노력을 평가하며 향후 이 같은 기조를 잘 유지해 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당은 “외교 난맥을 그대로 보여준 빈약한 성과”라며 “특히, 한·중·한·일 정상회담은 현안에 대한 어떤 점도 찾지 못한 ‘포토제닉’용에 불과했다”고 혹평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으로 인해 급격하게 냉각된 양당의 관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쌍용자동차 REXTON

당신을 위한 혁신이 빛나는 찬사로 돌아왔습니다

GRAND PRIX 2017 인간공학 디자인상 그랑프리 수상 WINNER 보합개발원 RCAR 테스트 1위의 안전성

GOOD TO GREAT G4 REXTON

쌍용자동차 대리점이 참신하고 유능한 영업인력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아래 해당 판매점에 연락 바랍니다.

광주권 : 광주중앙 529-0003	서광주 383-3434	광주광신 952-3330	광주첨단 971-0990	광주빛고을 655-4001	광주백운 233-2311
전남권 : 순천중앙 723-7100	목포중앙 277-8000	순천 745-3666	여수 683-1800	목포하당 285-7576	광양 791-0071
장흥 863-2600	나주 334-2727	영암 473-3456	강진 433-3100	해남 537-3100	화순 371-3555
완도 554-4545	영광 353-9500	보성 852-2892	서광양 761-8900	무안 454-0099	담양 383-5811
여수구룡 642-1400	함평 324-3800				진도 542-5888